

멜번대교구한인천주교회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Melbourne



주임신부 : 윤기선 요셉(Rev. Kiseun Joseph Youn)
M) 0402 686 560

주 소 : 89 Bond St. Ivanhoe VIC 3079

사목회장 : 최미라 소화 데레사 M) 0404 854 266

사무실 : 월, 수 11am ~ 2pm, 금 11am~3pm

주일미사 : 일요일 오전 11시

Tel: 03 9440 9515, Mob: 0423 532 073

어린이미사: 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kccmel@gmail.com

고해성사 : 주일 미사 15분 전

kccmel@cam.org.au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www.kccmelbourne.org.au

예비자교리: Zoom/대면 교리

[www.facebook.com/ Koreancatholic-church](https://www.facebook.com/Koreancatholic-church)

어린이 안전 & 복지에 관한 문제는 Child Safety Officers (3명)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대

제 1 독서 ㉮ 아모스 예언서 6,1ㄱ-4-7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6,11ㄱ-16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복음환호송 2코린 8,9 참조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알렐루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복음 ㄷ 루카 16,19-31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영성체송 요한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전례 봉사 안내

	9월 28일 (일) (녹) 연중 제 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10월 5일 (일) (녹) 연중 제 27주일			10월 12일 (일) (녹) 연중 제 28주일 (군인 주일)		
미사 해설	원선희 안젤라			조옥주 안젤라			원선희 안젤라		
제 1 독서	연승재 베드로			박상현 라파엘			박상현 라파엘		
제 2 독서	박영주 글라라			최미라 소화데레사			조옥주 안젤라		
보편지향기도	이승은 루시아			배미주 요안나			김지숙 로사		
봉 헌	4반			5반			1반		
성체분배자	김수환 요한			정성룡 세례자 요한			김수환 요한		
복 사	박하선 미카엘 이은유 아네스, 홍세나 가브리엘라			김연우 에스더 이유진 스테파니아, 이다온 에스텔			김영광 프란치스코 한나, 최인서 아가다		
성 가	입당	225	예물준비	432, 217	성체	286, 156	파견	529	
미 사 곡	자비송 : 325 아멘 : 377			보편지향기도 : 370 주님의 기도 : 387			거룩하시도다 : 327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90		
							신앙의 신비여 : 373 하느님의 어린양 : 328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권혁준 바오로 신부 | 하계동성당 주임

세상은 발전하고 삶의 자리도 윤택해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한 성장해 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복음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지내는 ‘어떤 부자’와 집 대문 앞에서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는 ‘라자로’가 등장 합니다.(루카 16,19-20 참조) 부자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라자로로는 배고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보물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나의 관심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명동에서 신자들에게 백설기 한 박스(20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떡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냉동실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기에, 혜화동까지 걸으며 거리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술을 드시며 거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필요한지 물어 보았고, 거리에서 주무시던 분들에게는 온기를 느낄 수 있게 얼굴 가까이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백설기를 나누어 드리며 느꼈던 기쁨으로,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백설기 부자였던 제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기에 복음을 자주 묵상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얻는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의로움과 신심,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티모 6,11 참조) ‘불행하게 자신만 걱정 없이 사는 삶,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삶’(아모 6,1 참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살다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도 마지막 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특별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거나 예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되도록,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자주 묵상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날짜	반 봉 사	안 내
9/28	4 반	반 봉사자
10/5	5 반	반 봉사자
10/12	1 반	반 봉사자

♣ 베드로회 봉사 일정표 ♣		
날짜	봉사	메뉴
9/28	4 반	커피/티/비스킷
10/5	5 반	커피/티/비스킷
10/12	1 반	커피/티/비스킷

◆ 본 당 단 체 모 임 안 내 ◆			
단 체	일 시 및 장 소		문 의
사 목 회	매월 넷째 주일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반장 모임	매월 첫째 주일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대철 베드로 복사단 어머니회	추후 공지		손은희 크리스티나 0433 242 390
마니피캇 성 가 대	주일 미사 전 커뮤니티 홀 10:15am 까지		문소영 소피아 0406 174 746
청 년 부	추후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주일학교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홀 및 사제관		임연희 보나 0457 258 066
주일학교 자모회	추후공지		김나영 안젤라 0423 094 789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자비의 모후	추후 공지	+
	천상의 모후	추후 공지	전수련 엠마누엘라 0423 614 598
	위로자의 모후	추후 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성서반	매 주일 Zoom 8pm		왕현경 스텔라 0421 700 386
연령회	추후공지		조옥주 안젤라 0430 282 737
어린이 복지회	추후 공지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이상원 베네딕토 0403 189 387

10월 반 모 임 안 내 루카 17,11-19		
반	일시 / 장소	반장 연락처
1반	10월 12일 (일) 12:30pm 성당 도서관	박비주 세실리아 0430 527 837
2 & 7 반	10월 18일 (토) 6:00pm 김종환 루카 가정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3 반	10월 17일 (금) 6:00pm 김수현 사베리오 가정	김장현 라자로 0451 155 551
4, 6, 8 반	10월 12일 (일) 12:15pm 성당 커뮤니티 홀	김수환 요한 0433 800 461
5 반	10월 11일 (토) 7:00pm Zoom	이승은 루시아 0431 208 178
6 & 8 반	4반과 함께	김수환 요한 0430 217 100
7 반	2반과 함께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 우 리 들 의 정 성 ♥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헌 금	\$575.80	\$533.20	\$527.90
교 무 금	\$930.00	\$1,020.00	+
감사헌금	+	+	+
합 계	\$1,505.80	\$1,553.20	\$527.90
성모동산 기금	\$33,069.51	\$33,069.51	\$33,069.51
☺ 감 사 합 니 다 ☺			



교무금 납부자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재정부(박상현 라파엘)를 통하여 책정하십니다.
0478 510 331 kccm.treasury@gmail.com

▶ 교무금은 매 주일 미사 전 성당 입구 테이블, 미사 후 사무실 에서 접수합니다.

▶ 교무금을 성당계좌로 보내실 때는 Reference에 보내신 분의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십니다.

A/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Bank:CDF(NAB) BSB:083347 A/C No: 574926224

◆ 2025년도 사목 방침

‘순례와 친교’

시니어 봄 나들이#

- 일시: 10월 4일(토)

- 장소: St Macatan's Catholic Church(순례 성당)/ Mornington Botanical Rose Gardens

- 성당에 모여서 20인승 관광버스로 9시 30분에 단체로 출발합니다.

◆ 오늘의 봉사

미사안내는 4반입니다.

미사 전) 미사 안내와 간식 준비

미사 후) 뒷정리

◆ 사목회의

일시) 오늘 9월28일(일) 3pm Zoom

◆ 반장모임

일시) 10월5일(일) 3pm Zoom

◆ 성가대 단원 모집

대상) 성가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
모집 구분)

- 정규 단원 : 주일미사 성가 및 특송 참여

- 프로젝트 단원 : 특송 시에만 참여 (월 1회 정도 + 부활·성탄)

정기적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소영 소피아 0406174746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추석(10월5일)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형제자매를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당 입구에 봉헌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 10월 5일 11시 주일미사

제출) 10월 1일까지 사무실

◆ 2025 추석 대잔치

호주 빅토리아주 한인회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멜번 가요제를 진행 합니다.

일시) 10월 11일(토) 오후 12시부터
장소) Unit 1/29 Railway Ave, Oakleigh VIC 3166

◆ Daylight Saving 2025

일시) 10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계를 새벽 3시로 맞추시면 됩니다.

일시	행사 일정	성당 오시는길 <MELWAY31 D6>
9월 28일(일) 10월 5일(일)	전민족 미사(봉당) 전민족 미사(교구), 추석 합동 위령미사	[250번 버스 (월요일~일요일 운행)] [350번 버스 (월요일~금요일 운행)] 승차: Queen St/ Lt Collins St Lonsdale St, Exhibition St

< 제 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레오 교황님 담화 - 이주민, 희망의 선교사 >

전례상식

레오 교황은 제 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희망의 선교사’라는 주제 아래,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가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복음화의 증거자임을 강조했다. 교황은 “오늘날 전쟁, 폭력, 기후 위기, 불의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와 온전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희망의 증인이라며 위로와 존중의 시선을 요청했다. 교황은 “이주민은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이 정착한 지역에서 “신앙의 열정과 영적 활력으로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적 사막화에 시달리는 교회를 일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역시 “희망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받아들여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복음의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주민과 난민, 그들과 함께 걷는 모든 이들을 동정 마리아의 보호에 맡긴다”며, 이들이 지닌 희망이 꺼지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닮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도했다.

<p>물리치료 Physiotherapy Clinic 곽민경 비아 0402 048 412</p> <p>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필라테스: 임산부, 체형교정 코어트레이닝 HICAPS 청구 가능 (GP 소견서, 개인보험)</p>	<p>음악 개인 레슨</p> <div>  피아노 하미경 루시아 0420 556 031 </div> <div>  바이올린 하미현 모니카 0451 996 032 </div>
<p>Chimac the Korean Bistro 전영은 카타리나 0415 786 768</p> <p>K-BBQ & Fried Chicken 95 Upper Heidelberg Rd Ivanhoe VIC 3079</p>	<p>엑심 국제 물류 장석일 에릭 0420 934 061</p> <p>수출입화물 국제운송 및 통관  exim@eximex.com.au www.eximex.com.au</p>